

성 프란치스코와 구유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과 영성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되심, 즉 육화에 두었다. 그는 하느님께서서 탄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시려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몸을 구부리셨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참되고 거룩한 당신 사랑 (요한 17.26)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가 된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82](#)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 “프란치스코는 끊임없는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겼고, 예리한 사고력으로 그리스도의 행적을 되새겼다. 육화의 겸손과 수난의 사랑이 특히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4](#)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이번에도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성탄 15일 전에 그를 불러 말했다. ‘그레치오에서 우리 주님의 축제를 지내고 싶으면, 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준비하시오. 우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쉼복더기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5](#)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더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싶을 때면 사랑에 불타서 그분을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부르곤 하였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할 때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양의 울음 소리 같았다. 그의 입은 말로써보다는 차라리 감미로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형편이었다. 그 뿐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기’나 ‘예수’라는 말을 할 때, 그의 혀는 이 말의 감미로움에 입맛을 다시고 입술을 핥으며 맛과 향기를 맛보는 듯하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6](#)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동안 듣고, 가르치고 살았던 육화한 말씀의 탄생을 경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겸손때문이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177](#)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위의 인용문들은 프란치스코 전통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그런 수고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pages/early-sources-table-of-contents>

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한 질문들

- + 성 프란치스코는 왜 그리스도의 육화에 그렇게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까?
- +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시오.
- + 우리는 육화하신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서?